



## 民族魂의 발자취

金 振 元

(東山高等學校 校長)

1988年!

今年은 本校의 開校 50週年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아 『東山五十年史』를 펴내게 됨을 衷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私學의 名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東山學校가 갖는 建學精神이나 오랜 歷史와 빛나는 傳統은 실로 크나큰 자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東山の 50星霜은 바로 우리나라 近世史의 縮圖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日帝植民統治 末期의 쓰라린 民族 苦難, 8·15解放 後 分斷된 祖國의 悲運과 6·25 同族相殘의 悲劇 등을 지켜본 東山の 半世紀는 곧 우리 民族 受難의 歷史이며, 祖國의 悲劇적인 歷程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 激動하는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東山學校는 民族과 더불어 哀歡을 같이 해왔으니, 실로 東山五十年史는 民族文化 抹殺을 위한 日帝의 압박도, 共產赤徒들의 탄압도 물리친 百折不屈의 民族魂을 誇示한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歷史를 編纂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資料 蒐集이 豊富하여도 編輯者의 史觀에 따라 힘겨운 取捨選擇의 過程을 거쳐 올바르게 엮어야 하는 일인데 東山 關係의 史料는 日帝의 抑壓 속에 保存도 至難한 일이었고 解放 後는 北韓傀儡에 의하여 모두가 湮滅되었으니 이와 같이 부족한 史料로 본 『東山五十年史』를 엮은 편집진의 어려움을 새삼 헤아리게 됩니다.

다만, 이 『東山五十年史』가 世上에 나오므로써 東山이 보다 더 充實한 民族教育의 殿堂이 되기를 바라며, 온 東山人이 東山の 教訓처럼 믿음(信義)을 가진 참된, 勇氣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同門들 사이에 親睦과 紐帶가 더욱 強化될 것을 期待합니다. 아울러 이것이 契機가 되어 民族教育의 道場, 東山에 보다 자랑스러운 새 章의 『東山百年史』가 創造되기를 祈願하며 이 책을 펴내기 위하여 온갖 協調와 便宜를 提供해 주신 同門 여러분과 어려운 與件 속에서 編輯作業에 勞苦가 많았던 여러분의 誠意에 深甚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어떠한 行爲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價値判斷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그때 形便대로 멋대로 判斷해서 行爲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東山人은 東山人으로서의 價値 基準을 가지고 매진해야 한다.

誠實함은 東山の 價値尺度이다. 日帝의 民族抹殺政策에 正面으로 抗拒하여 民族魂을 살리려는 開校精神은 獨立精神이요 自主精神이요 民主精神이다. 오늘에 이 精神을 高揚하여 來日을 향한 우리 東山の 無窮한 發展과 未來를 향한 드높은 氣像을 期待하면서 『東山五十年史』 發刊을 自祝하고 이를 위하여 協力을 아끼지 않은 同門 및 關係者에게 깊은 謝意를 표한다.